광주시, '민·군 공항 통합이전' 장기화… "전남도 반대 심해"

오는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이전 못하면 서남권 관문 내줘야
전남도 "무안 군민 교두보 역할 해와"

광주 시민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설명회가 열린 9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항 이전 장기화의 배경으로 전남도·무안군의 비협조와 정치권 역할 부재를 지목했다.

강 시장은 서남권을 관통하는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항 이전을 결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광주시·광산구가 연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남도가 뜨뜻미지근하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전남 함평과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전남도의 반대가 심했다"며 "그래서 대안을 냈던 것이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서명이었지만 이후 함흥차사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공항 이전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무안군에 대해서도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주라고 해도 만나주시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근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주시당에 쉽지 않지만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간·군 공항 이전 장기화에 에둘러 전남도·무안군에 서운한 속내를 비쳤지만 무안 주민 설득을 위한 소통방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통합 공항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무안민간·군공항 통합이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신공항 계획은 물 건너가고, 오는 2029년 개항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서남권 관문을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새만금공항이 들어서고, 청주공항·대구공항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이전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 군민들을 설득하며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무안 군민들이 과거에는 반대 일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5월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도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오는 12일에도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광주 서구에서 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공동체형 돌봄시설인 'K보듬 600' 경북 1호점.

"아침부터 자정까지 아이 돌봐드려요" 'K보듬 6000' 경북 1호점 큰 호응

아파트 1층서 통합 돌봄시설 운영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3개 시설 설치
야간·공휴일·식사 제공 등에 '인기'

공동체형 돌봄 시설인 'K보듬 6000' 경북 1호점(경산시 하양읍)이 호응을 얻고 있다. K보듬 6000은 1년 365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저녁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아파트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돌봄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경북도의 특화 돌봄 사업이다.

경산 하양읍 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 1층에 위치한 K보듬 6000 경북 1호점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하양에코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대상 '하양에코포레마을돌봄터', '하양공동육아나눔터' 등 3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 1호점은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평일 야간과 공휴일 운영, 식사 제공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절실한 만큼 'K보듬 6000' 경북 1호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광주교육청, '주차장 개방' 등 공유문화 확산

교육진흥 전담팀 활동

광주교육청이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진흥 전담팀(TF) 활동의 하나로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진흥 전담팀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 균등 교육정책과 주요 민원을 자치구와 협력해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 서구를 시작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주차장 개방을 추진해왔다. 현재 북구 3개교·서구 8개교·광산교 2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학교 주차장 311면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광주=양수녕 기자

거창군, '먹거리 재단' 설립 용역보고회

공공성 확보로 경제 활성화 도모

경남 거창군은 지난 9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이병철 부군수, 간부 공무원,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먹거리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거창군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와 먹거리 관련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준비 중인 먹거리 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개최됐다.

거창군 먹거리 재단 설립은 작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선진정책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거창군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됐다.

설립을 준비 중인 거창군 먹거리 재단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창푸드종합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등 먹거리 관련 시설의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중·소·고령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거창푸드 인증 관리 및 지도, 민관협력형 먹거리보장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창군은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먹거리 관련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먹거리 연계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계획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 7% 인상

내년·내후년에도 각각 8%씩 올라

부산시 상수도 요금이 10월 사용분부터 7% 인상된다. 또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씩 인상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해 신설사업,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최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월평균 t당 60원씩, 일반용은 t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씩 인상되며, 공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인상된다.

본부는 기존 누진제를 오는 10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 선정

장성군이 1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마무리 하고 '성장장성' 브랜드로 최종 선정됐다.

최종 디자인은 받침 'ㅇ'의 크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율동감 있게 살렸다. 녹색은 장성의 자랑인 청정 자연을, 파란색 계열은 첨단 복합 산업도시로의 성장과 창조적 미래를 뜻한다.

/장성(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광양시

남부연습림 관사, 관리단체 지정

광양시는 오는 12일 관보게재를 통해 광양시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남부연습림 내에 건립한 직원 관사다. 2동의 건물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 중복도를 중심으로 배치된 방, 방과 방 사이 문지방 윗부분의 환기창 등 건축 당시 주택의 공간 구성 형식을 엿볼 수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대구시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내년 2월 23일(일) 개최된다. 마스터즈 부문 참가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총 4만 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존 대회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렸으나, 기후 온난화로 4월 초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내년 대회는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됐다.

참가 신청은 대구마라톤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 종목은 풀코스, 하프, 10km, 5km로 나뉘며 엘리트 부문은 세계 최고 규모의 시상금(1위 16만 달러/약 2억 1000만원)을 유지하고, 마스터즈 부문 1위에게는 풀코스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세계 7대 마라톤 대회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보호지역 지정

영양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는 1970년대 계단식 논으로 이용되다가, 점차 논 면적이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묵논습지 형태로 변한 곳이다. 해발 550m의 산정산부에 자연적으로 물이 모여 수량이 유지되는 지리적 희귀성으로 인해, 주변 야생생물이 상시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주요한 서식지 역할도 해왔다. 장구메기습지에는 458종의 야생생물이 확인되었으며,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